

부산·울산지역 성인학습자들의 생애능력개발에 대한 인식 분석

박종운 · 윤형근* · 강버들 · 원효헌
(부경대학교)

A Study on Adult Learners' Perception on the Development of Life Competencies in Busan and Ulsan

Jong-Un PARK · Hyung Keun YOON* · Beodeul KANG · Hyo-Heon W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and analyze the realities and needs of life long education, the necessity and perception of life competencies and the difference of competencies on experiences of education to support life long education system for adult learners in Busan and Ulsan.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234 adult learners living in Busan and Uls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dult learners perceived that life long education was very important to adults and appreciated an educational institution being managed by government. Second, adult learners thought that basic literacy competency and basic work competency were important and late fifties perceived that professional job is in important. Third, adult learners perceived that self directed learning and capacity of management are poor competencies. And they perceived that the government support adult learners who has economical difficulty. Forth, adult learners perceived that it was normal that 'professional job' and 'job transition abilities', 'women', 'the middle aged and old', 'the unemployed' and 'low incomers' perceived that they have poor level. Fif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χ^2 test for determin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experience in lifelong learning among adult learner groups divided by their individual backgrou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a few competencies($p<.05$, $p<.01$).

Key words : Life competence, Adult learner, Life-long Education experience

I. 서론

지식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단순 능력과는 달리 새로운 능력들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새로이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러한 능력을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하여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영국은 산업계와 연계를 토대로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하는 것이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첩경이라 인식하고 평생교육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설정해 일반인들의 교육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

* Corresponding author : 010-3488-4019, yeelen1204@naver.com

훈련체계를 일원화하였다(DfEE 2001a). 독일은 1970년대부터 주별로 성인교육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74년 ‘핵심자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처음 이루어진 후 핵심자질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적인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탐색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Lee, Byong-Jun 2002).

이러한 선진국들의 예를 볼 때,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성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은 국민개개인의 능력 개발에 도움을 주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청사진을 보여 주었고, 2008년 평생교육 진흥원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를 통해 일반 성인학습자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원활하게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미래를 대비한 생애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평생교육시스템을 통해 생애능력을 키워 사회에 유용한 산업인력을 배치하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기반으로 국가전체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4) 나타난 부산·울산지역에 대해서 성인학습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생애능력이 필요한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울산지역의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울산 지역 성인학습자들의 생애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요구, 생애능력 필요성 및 개발에 대한 인식, 생애능력 보유수준의 차이와 생애능력개발 교육 참여 경험은 어떠한지를 조사·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는 어떠한가?

둘째, 성인학습자들의 생애능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성인학습자들의 생애능력 개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성인학습자 특성에 따른 생애능력 보유 수준의 인식차이는 어떠한가?

다섯째, 성인학습자 특성에 따른 생애능력개발 교육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생애능력

‘생애능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 동안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이며 기본적인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능력과 경험을 포함한다. 여기서 지식(knowledge)은 개인이 특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이다. 그리고 기술(skills)은 특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태도는(attitude)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행동의 원인으로 특정해위나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동기와 신체적 특성, 상황 또는 외부 정보에 대한 반응하는 특질로 나누어진다(McClelland 1973).

2. 생애능력 하위범주

가. 기초문해능력

기초문해능력이 최소한의 학습권한이며 배경별 불균형을 없애고 성인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 발전 및 인적자원개발의 첫 단계가 된다고 했다(Oh Yun -Na 2006).

나. 기본업무능력

기본업무능력은 한 개인이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준비 능력이다(Kim Tae-Jun 2002).

다. 조직관리능력

개인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속에 잘 융화되기 위한 능력으로 대인관계 능력, 갈등 관리능력, 협상능력, 리더쉽 능력 등이 있다(Oh Yun-Na 2006).

라. 전문직업능력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또는 기술을 습득하고 함양하는 능력을 뜻한다(Kim Tae-Jun 2002).

마. 직업전환능력

구직기술능력, 미래를 대비한 기술 습득을 장기적으로 계획·관리하는 능력, 재무,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술능력을 포함한다(Kim Tae-Jun 2002),

바. 자기개발능력

중 자기개발영역인데 건강 및 스포츠 관련교육, 인문학교육, 문화·예술교육, 자아이해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Choi Don -Min, 2003).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10월 20일 부터 11월 5일 까지 부산시 중구(카톨릭센터), 사상구(동서대학교), 남구(부경대학교), 해운대 구청, 금정구(스포월), 울산 등 6개 지역의 평생교육 경험이 있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성인학습자 총 300명에게 방문 조사와 인터넷 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274부로 91.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자료 처리과정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 답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34부를 최종 분석의 대상을 삼았다.

2. 조사도구

가.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생애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요구, 생애능력에 대한 인식, 개인적 특성 및 평생교육 참여 경험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생애능력 수준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Kim Tae-Jun(2002)의 ‘학습사회에서 성인의 생애능력 및 성인학습체제 질 관리에 관한 요구조사’설문지와 Oh Yun -Na(2006)의‘성인학습자의 핵심역량 개발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의 방향과 의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는 <Table 1>과 같이 Cronbach α 가 .714로 나왔으며, 문항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Reliability

| domain | number | reliability (Cronbach α) |
|---|--------|-------------------------------------|
| perception on necessity of life competency | 6 | .667 |
|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 1 | .716 |
| learning experience of lifelong education | 6 | .715 |
| education contributiveness for adult learners | 1 | .737 |
| reserve level of life competencies | 6 | .712 |
| total | 20 | .714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참여 경험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개인적인 배경변인에 따라 생애능력에 대한 인식, 보유 수준, 능력개발교육 참여 경험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Variables and contents of questionnaire

| Variables | contents |
|---|--|
| attribution of adult learners | sex, age, scholarship, the state of employment, types of work, income |
| perception on necessity of life competency | basic literacy, basic work, Organization management, professional job, job transition, self-development competency |
|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 perception of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for developing life competency |
| learning experience of lifelong education | learning experience of basic literacy |
| | learning experience of basic work |
| | learning experience of organization management |
| | learning experience of professional job |
| | learning experience of job transition |
| education contributiveness for adult learners | lifelong-education contribution of developing personal competence |
| reserve level of life competency | reserve level of basic literacy |
| | reserve level of basic work |
| | reserve level of organization management |
| | reserve level of professional job |
| | reserve level of job transition |
| | reserve level of self-development competency |

IV. 연구 결과

1. 생애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참여 실태 및 요구

지난 1년간 평생학습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프로그램 수는 <Table 3>과 같이 '1개~2개'가 64.5%, '3~5개'가 15.8%로 대부분의 성인학습자가 1~2개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생교육 참여 소요 경비는 '10~30만원대'가 33.8%, '10만원 미만'이 25.6%로 나왔다. 생애역량 향상에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는 현장경험과 교실수업이 결합된 형태가 27.4%, '실험, 실습위주'가 23.5%였다. 이는 여러 가지 학습방법 중, 성인학습자들은 체험을 통한 학습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애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교육기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30.8%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또는 여학원'이 26.5% 순으로 나왔다. 평생교육참여 장애요인은

<Table 3> Realities and needs of lifelong education for developing life competency

| experienced programs | 1~2 | 3~5 | 6~8 | more than 9 | nothing | total |
|----------------------------|---------------------|----------------------------------|----------------------------------|-----------------------------------|-------------------------|-----------|
| number (%) | 151 (64.5) | 37 (15.8) | 7 (3.0) | 3 (1.3) | 36 (15.4) | 234 (100) |
| division | very helpful | a little helpful | normal | not much help | not help at all | total |
| number (%) | 47 (20.1) | 125 (57.7) | 43 (18.4) | 6 (2.6) | 3 (1.3) | 234 (100) |
| ways of learning | discussion | lecture/internet | experiment practice | field experience | field experience /class | total |
| number (%) | 29 (12.4) | 30 (12.8) | 55 (23.5) | 56 (23.9) | 64 (27.4) | 234 (100) |
| an educational institution | regional government | profit organization | nor-profit organization | college lifelong education center | the rest | total |
| number (%) | 72 (30.8) | 50 (21.4) | 24 (10.3) | 62 (26.5) | 26 (11.1) | 234 (100) |
| obstacles | tuition fee | lack of information | chores/job | lack of learning results | the rest | total |
| number (%) | 80 (34.2) | 22 (9.4) | 99 (42.3) | 15 (6.4) | 18 (7.7) | 234 (100) |
| learning consultation form | 1:1 consultation | internet consultation(anonymity) | internet consultation(real name) | helpline | group counselling | total |
| number (%) | 127 (55.4) | 28 (12.2) | 8 (3.4) | 21 (9.1) | 45 (19.6) | 234 (100) |

‘가사나 직장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이 42.3%, ‘수강료, 교통비, 교재비 등 학습비용에 대한 부담’이 34.2% 순이었다. 선호하는 학습상담 형태는 ‘1:1상담’이 55.4%로 나타나, 개별상담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2. 성인 학습자 특성에 따른 생애능력개발 필요성 인식

성인학습자 특성에 따른 생애능력개발 필요성 인식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 기초문해능력은 <Table 4>와 같다. 성인학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소득의 차이와 상관없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은 기초문해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67.6%, 60세 이상에서 66.7%가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초문해능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업무능력은 성별에서 남자가 ‘매우 필요’에 52.2%, 여자는 47.9%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보아, 여성도 사회생활에 적극

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서는 30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50% 이상 ‘매우 필요’로 응답하여 기본업무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직관리능력에서 남자는 ‘매우 필요’에 44.8% 여자는 50.3%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조직 관리능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예상외의 응답이 나왔다.

연령에서는 30, 40대, 50대가 50% 이상 ‘매우 필요’로 응답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주 연령층이 모두 조직관리능력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전문직업능력에서는 남자가 ‘매우 필요’에 35.8% 여자는 19.8%, 다소 필요’에 남자는 32.8% 여자는 46.1%로 나왔다. 연령에서는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41.2%가 ‘매우 필요’로 응답해 다른 나이층보다 전문직업능력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 직업전환능력은 연령에서 41세에서 50세, 50세 이상이 ‘매우 필요’와 ‘다소 필요’에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와 중년에 접어들수록 직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어 미래 준비에 대하여 더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Table 4> Perception on necessity of life competency by learners having individual characteristic

| variable | division | very necessary | a necessary | little normal | not much necessary | not necessary at all | total |
|-------------------------|-------------------------|----------------|-------------|---------------|--------------------|----------------------|----------|
| sex | male | 34(50.7) | 21(31.3) | 11(16.4) | . | 1(1.5) | 67(100) |
| | female | 81(48.5) | 65(38.9) | 20(12.0) | 1(6) | . | 167(100) |
| age | below 30 | 23(35.9) | 31(48.4) | 10(15.6) | . | . | 64(100) |
| | 31~40 | 24(53.3) | 14(31.1) | 7(15.6) | . | . | 45(100) |
| | 41~50 | 41(48.2) | 33(38.8) | 9(10.6) | 1(1.2) | 1(1.2) | 85(100) |
| | 51~60 | 23(67.6) | 7(20.6) | 4(11.8) | . | . | 34(100) |
| | more than 61 | 4(66.7) | 1(16.7) | 1(16.7) | . | . | 6(100) |
| scholarship | high school graduate | 7(50) | 3(21.4) | 4(28.6) | . | . | 14(100) |
| | college graduate | 25(41.0) | 28(45.9) | 8(13.1) | . | . | 61(100) |
| | university graduate | 67(54.5) | 42(34.1) | 12(9.8) | 1(8) | 1(8) | 123(100) |
| | grad school graduate | 16(44.4) | 13(36.1) | 7(19.4) | . | . | 36(100) |
| the state of employment | employee | 58(51.8) | 37(33.0) | 15(13.4) | 1(9) | 1(9) | 112(100) |
| | self-employed person | 9(42.9) | 7(33.7) | 5(23.8) | . | . | 21(100) |
| | unemployed people | 2(20) | 6(60) | 2(20) | . | . | 10(100) |
| | economically inactive | 37(50.7) | 29(39.7) | 7(9.6) | . | . | 73(100) |
| | th rest | 9(50) | 7(38.9) | 2(11.1) | . | . | 18(100) |
| income | below 1 million won | 8(40) | 9(45) | 3(15) | . | . | 20(100) |
| | 1~2 million won | 18(50) | 13(36) | 5(13.9) | . | . | 36(100) |
| | 2~3 million won | 30(46.2) | 28(43.1) | 6(9.2) | 1(1.5) | . | 65(100) |
| | 3~4 million won | 20(45.5) | 14(31.8) | 9(20.5) | . | 1(2.3) | 44(100) |
| | more than 4 million won | 39(56.5) | 22(31.9) | 8(11.6) | . | . | 69(100) |

수 있다. 자기개발능력에 있어서는 여자가 ‘매우 필요’에 44.3%, 남자는 38.8%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자기개발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인학습자의 생애능력개발에 대한 인식

기초문해능력을 육성시키기 위해 <Table 5>와 같이 ‘수강료 등 소용비용의 국가지원’이 45.3%로 가장 높게 나와 국가가 기초문해능력 육성방안에 적극 개입하기를 원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직업전환능력 중 가장 부족한 능력에 대한 인식은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43.6%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 대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장기적으로 계획·관리하는 능력’이 35%로 나왔다. 생애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49.1%가 ‘매우 중요하다’, 38.9%가 ‘다소 중요하다’고 답했다. 기본업무능력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35.5%로 가장 많았고, ‘비판적 사고능력’이 30.3%로 나왔다.

조직관리능력에서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관리능력’ 23.9%, 기획 및 조직능력’이 22.6%, ‘리더쉽’이 22.2% 순으로 나왔다. 국가의 생애능력개발 중점지원대상에 대한 인식에서는 ‘실직자’가 33.8%, ‘노인’이 19.7%, ‘저소득 계층’이 15.8%로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생애능력 보유수준의 차이

개인적 배경에 따라 기초문해능력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별로 없었고, 연령에서는 ‘별로 부족하지 않음’에 많이 응답해 기초문해능력 수준이 많이 올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업무능력은 연령에서 41~50세가 ‘별로 부족하지 않음’이 56.5%로 가장 높았고, 소득에서는 200~300만원 미만 ‘별로 부족하지 않음’에

<Table 5> Perception on developing of life competency of adult learners 1

| | | | | | |
|--------------------------------------|---------------------------------|---------------------------------------|--|---------------------------------------|----------|
| developing method for basic literacy | government support to expense | connect to degree, credit | open education institute for basic lecture | legal, institutional for stable study | total |
| number(%) | 106(45.3) | 11(4.7) | 39(16.7) | 76(32.5) | 234(100) |
| job transition competency | skill, knowledge for the future | gaining employment on job information | professional property management | the rest | total |
| number(%) | 82(35) | 45(19.2) | 102(43.6) | 5(2.1) | 234(100) |
| importancy of lifelong education | very important | a little important | normal | not very much | total |
| number(%) | 115(49.1) | 91(38.9) | 26(11.1) | 2(9) | 234(100) |
| basic work competency | self-indicate learning | critical thought | communication | problem solving skill | total |
| number(%) | 83(35.3) | 71(30.3) | 40(17.1) | 40(17.1) | 234(100) |

<Table 6> Perception on developing of life competency of adult learners 2

| | | | | | | | |
|------------------------------------|--------------------------|---------------------|-------------------|------------|-----------------------|----------|----------|
| organization management competency | relationship | conflict management | negotiating skill | leadership | planing, coordinating | the rest | total |
| number(%) | 22(9.4) | 56(23.9) | 33(14.1) | 52(22.2) | 53(22.6) | 18(7.7) | 234(100) |
| people to focusing support | elderly/retired employee | female | unemployed | employee | lower incomers | the rest | total |
| 빈도(%) | 46(19.7) | 33(14.1) | 79(33.8) | 20(8.5) | 37(15.8) | 19(8.1) | 234(100) |

<Table 7> Difference of reserve level of life competence by personal characteristic

| variable | division | very shortage | a little shortage | normal | not much shortage | not shortage at all | total |
|-------------------------|-------------------------|---------------|-------------------|----------|-------------------|---------------------|----------|
| sex | male | . | 6(9) | 27(40) | 32(47) | 2(2) | 67(100) |
| | female | 2(1.2) | 20(12) | 57(34.1) | 64(38.3) | 24(14.4) | 167(100) |
| age | below 30 | . | 6(9.4) | 27(42.2) | 25(39.1) | 6(9.4) | 64(100) |
| | 31~40 | . | 3(6.7) | 16(35.6) | 21(54.7) | 5(11.1) | 45(100) |
| | 41~50 | 2(2.4) | 12(14.1) | 27(31.8) | 32(37.6) | 12(14.1) | 85(100) |
| | 51~60 | . | 5(14.7) | 12(35.3) | 14(41.2) | 3(8.8) | 34(100) |
| | more than 61 | . | . | 2(33.3) | 4(66.7) | . | 6(100) |
| scholarship | high school graduate | 1(7.1) | 3(21.4) | 5(35.7) | 4(28.6) | 1(7.1) | 14(100) |
| | college graduate | . | 9(14.8) | 29(47.5) | 22(36.1) | 1(1.6) | 61(100) |
| | university graduate | 1(.8) | 12(9.8) | 38(30.9) | 54(43.9) | 18(14.6) | 123(100) |
| | grad school graduate | . | 2(5.6) | 12(33.3) | 16(44.4) | 6(16.7) | 36(100) |
| the state of employment | employee | 1(.8) | 11(9.8) | 43(38) | 42(37.5) | 15(13) | 112(100) |
| | self-employed person | . | 3(14.3) | 10(47.6) | 8(38.1) | . | 21(100) |
| | unemployed people | . | 2(20) | 3(30) | 4(40) | 1(10) | 10(100) |
| | economically inactive | 1(1.4) | 8(11) | 28(38.4) | 29(39.7) | 7(9.6) | 73(100) |
| | th rest | . | 2(11) | . | 13(72.2) | 3(16.7) | 18(100) |
| income | below 1 million won | . | 6(30) | 6(30) | 7(35) | 1(5) | 20(100) |
| | 1~2 million won | . | 2(5.6) | 12(33.3) | 17(47.2) | 5(13.9) | 36(100) |
| | 2~3 million won | 1(1.5) | 5(7.7) | 25(38.5) | 29(44.6) | 5(7.7) | 65(100) |
| | 3~4 million won | 1(2.3) | 2(4.5) | 19(43.2) | 17(38.6) | 5(11.4) | 44(100) |
| | more than 4 million won | . | 11(15.9) | 22(31.9) | 26(37.7) | 10(14.5) | 69(100) |

52.3%로 가장 높게 나와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업무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관리능력은 학력에서 대학원 졸업이 ‘별로 부족하지 않음’에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직업능력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문직업능력 보유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별로 부족하지 않음’에 남자(35.8%), 직장인(31.3%)로 나왔다. ‘다소 부족’에서는 여자(26.9%), 실업자(40%), 저소득자(35%)가 높게 나와 여자와 저소득자들이 전문직업에 대한 참여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전환능력은 실직자가 ‘다소 부족’에 50%로 나와, 실직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기개발능력은 학력에서 대학교 졸업, 대학원졸업이 ‘별로 부족하지 않음’에 21.1%, 19.4%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자일수록 자기개발에 더 힘쓰고, 거기에 대한 인식도 높게 가지고 있음으로 분석된다.

5. 성인학습자 특성에 따른 생애능력개발교육 참여 경험

가. 개인 배경에 따른 생애능력 개발교육 참여 경험

성인학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생애능력개발교육 참여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역량개발 교육 참여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χ^2 검정을 하였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문해능력에서는 학력에 따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본업무능력에서는 성별, 연령, 취업상태에 따라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관리능력에서는 소득에서 유의수준

.05, 나이에서는 .01로 나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전환능력은 성별에서 유의수준 .0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배경에 따른 자기 개발능력에서는 학력에서 유의수준 .05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

<Table 8> Learning experience of life competence by personal characteristic

| variable | | division | yes | no | total | χ^2 |
|-------------------------|-------------------------|-------------------------|----------|-----------|----------|--------------------|
| basic literacy | scholarship | high school graduate | 7(50) | 7(50) | 14(100) | 10.156* (df=3) |
| | | college graduate | 37(60.7) | 24(39.3) | 61(100) | |
| | | university graduate | 46(37.4) | 77(62.6) | 123(100) | |
| | | grad school graduate | 13(36.1) | 23(63.9) | 36(100) | |
| basic work | sex | male | 31(46.3) | 36(53.7) | 67(100) | 4.388* (df=1) |
| | | female | 53(31.7) | 114(68.3) | 167(100) | |
| | age | below 30 | 14(21.9) | 50(78.1) | 64(100) | 9.479* (df=4) |
| | | 31~40 | 15(33.3) | 30(66.7) | 45(100) | |
| | | 41~50 | 38(44.7) | 47(55.3) | 85(100) | |
| | | 51~60 | 15(44.1) | 19(55.9) | 34(100) | |
| | the state of employment | more than 61 | 2(33.3) | 4(66.7) | 6(100) | 11.213* (df=4) |
| | | employee | 48(42.9) | 64(57.1) | 112(100) | |
| | | self-employed person | 4(19) | 17(81) | 21(100) | |
| | | unemployed people | 3(30) | 7(70) | 10(100) | |
| organization management | income | economically inactive | 19(26) | 54(74) | 73(100) | 9.686* (df=4) |
| | | th rest | 10(55.6) | 8(44.4) | 18(100) | |
| | | below 1 million won | 4(20) | 16(80) | 20(100) | |
| | | 1~2 million won | 9(25) | 27(75) | 36(100) | |
| | | 2~3 million won | 18(27.7) | 47(72.3) | 65(100) | |
| | age | 3~4 million won | 12(27.3) | 32(72.7) | 44(100) | 14.258** (df=4) |
| | | more than 4 million won | 32(46.4) | 37(53.6) | 69(100) | |
| | | below 30 | 11(17.2) | 53(52.8) | 64(100) | |
| | | 31~40 | 15(33.3) | 30(66.7) | 45(100) | |
| | | 41~50 | 28(32.9) | 57(67.1) | 85(100) | |
| job transition | sex | 51~60 | 18(52.9) | 16(47.1) | 34(100) | 3.964* (df=1) |
| | | more than 61 | 3(50) | 3(50) | 6(100) | |
| self-development | scholarship | male | 14(20.9) | 53(79.1) | 67(100) | 10.156* (df=3) |
| | | female | 57(34.1) | 110(65.9) | 167(100) | |
| | | high school graduate | 7(50) | 7(50) | 14(100) | |
| | | college graduate | 37(60.7) | 24(39.3) | 61(100) | |
| university graduate | 46(37.4) | 77(62.6) | 123(100) | 13(36.1) | 23(63.9) | 36(100) |

*p<.05, **p<.01

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자기 개발에 더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생애능력 보유수준에 따른 역량개발교육 참여경험

생애능력 보유수준에 따른 생애능력 참여경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χ^2 검정을 한 결과, 6가지 모든 생애능력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Table 9>와 같이 ‘자기개발능력’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다(80%)고 생각하는 성인학습자들이 부족하다(66%)

<Table 9> Learning experience of self-development by reserve level

| level of compethancy | yes | no | total | χ^2 |
|----------------------|----------|----------|----------|-----------------|
| very shortate | 8(66) | 4(33.3) | 12(100) | 5.190 (df=4) |
| a little shortage | 15(65.2) | 8(34.8) | 23(100) | |
| normal | 77(75.5) | 25(24.5) | 102(100) | |
| not much shortage | 65(84.4) | 12(15.6) | 77(100) | |
| not shortage at all | 16(80) | 4(20) | 20(100) | |

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참여율이 더 높게 나와 자기개발 능력수준을 스스로 높게 인식할수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연구결과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학습자들의 지난 1년간 참여한 프로그램이 1~2개로 서울지역 참여 실태(Oh Yun Na 2006) 조사내용과 같이 참여도가 낮고, 참여가 전혀 없는 사람도 많아 생애능력개발교육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울산지역 성인학습자들은 체험을 통해 직접 체득하는 학습을 선호하고, 교육기관은 강사의 실력과 기관의 신뢰도가 높은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생학습의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가사일과 경제적 부담’이 많은데 이는 Korean statistic research of lifelong education(2012)와도 일치해 학습 참여 여부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유형으로는 전문직업교육이라고 상당수가 응답해 보다 안정된 직업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려는 학습자들의 태도를 알 수 있었다.

둘째, ‘전문직업능력’에서 50대 이상이 그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아지는 고령화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중년 성인학습자의 위기의식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전문직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평생교육참여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필요성 또한 높게 인식하므로 성인학습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셋째, 성인학습자에게 가장 부족한 생애능력은 미래를 대비한 자신의 재산이나 지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재산과 지식을 어떻게 축적하고 개발시켜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의 중점지원대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라고 답해 Kwon Young Sun(2007)의 지적처럼 아직도 성인학습자들의 생애능력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성인학습자가 생애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문직업수행 능력과 직업전환능력 보유수준을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직업수행 능력과 직업전환능력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는 강하지만 능력개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에서는 실직자와 구직자가 생애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직업적 경험이 생애능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성인학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생애능력개발 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대한 차이는 전문직업 수행능력 개발교육을 제외한 5개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학습자 중심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2. 제언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성인학습자들이 다양한 능력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반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제도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생애능력개발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개발·육성
해야 한다.

둘째, 성인학습자들의 생애능력에 대한 교육
정보와 그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다각적으로 이
어져야 한다. 부산·울산지역 성인학습자들이 미래
에 대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학습참여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
다.

셋째, 사회적·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
들의 생활 여건에서 당장 필요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생애역량개발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
며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
한 학습이력을 기록, 보관하여 그들의 사회 진출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개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DfEE(2000b), National learning targets for England for 2002; Annual report 2000, London: DfEE.
- Kwon, Young Sun(2007) A study on the cognition of life-long Education by Teacher, Daejin University.
- Kim, Tae Jun(2002), Adults' life-skills in a learning society and the current status and the future of the quality management, Korean Education Developing Institution.
- Korean Education Developing Institution(2013), statistic research of lifelong education in 2013.
- Lee, Byung Jun(2002) loc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on publication of German.
- McClelland, D.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 1~14.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4), Brief of Busan-Ulsan labor market.
- Oh, Yun Na.(2006), A Study on Adult Learners' Perception and Needs on the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Ehwa womans university.

-
- 논문접수일 : 2014년 11월 28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5년 02월 03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02월 04일